

십자가 앞에 선 부부

Couple standing in front of the Cross

마가복음 10장 1-12절

-
1.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2.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10.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1.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यो
 12.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

1. 여러분들에게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헤롯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왕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3. 결혼이 만약 나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라면 배우자는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다 다루지 않았지만,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6절)
 -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7절)
 -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8절)
 -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9절)
4.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결혼의 시작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요셉 작가는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내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하나님은 사람에게 처음 배우자를 허락하셨을 때 그 목적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창2:18).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6. 마가복음 8장 35절을 찾아 읽어보면서, ‘자기 목숨’에 ‘자기 행복’을 대입하여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주 매끄럽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었나요?
7.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남편 혹은 아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나는대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